

연중 제34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제1독서: 다니 7, 13-14

제2독서: 묵시 1, 5-8

복 음: 요한 18, 33-37

순정이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요한 18, 37)

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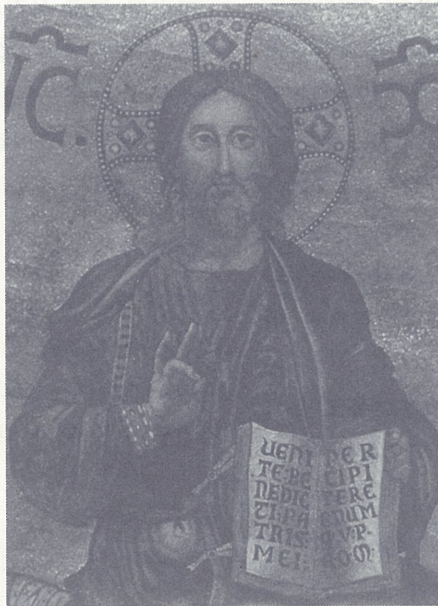
참된 하늘 나라 시민이 됩시다



왕수해 신부/교구 성서사도직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스도왕 축일임과 동시에 성서 주일입니다. 이 주간이 지나면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셈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다음과 같은 찬미가를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필립 2, 8-10)



뿐만 아니라,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못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 그의 주권은 스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다니 7, 14)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

가지 않게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요한 18, 36)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국을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 인도되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제1 독서는 말합니다(다니 7, 13).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을망정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셈입니다(요한 17, 14).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에페 3, 20). 하늘의 참된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늘 시민이면서도 하늘 시민으로서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모른다면 결국 거기서 쫓겨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마태 22, 11). 우리

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씌여 있는 성서 책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찬 성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하늘 나라 시민이 됩시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요한 18, 37)

내버려둬라

김 인 봉(대건안드레아)

며칠 전에 중앙성당 앞을 지나가다 보니 전경들이 성당 앞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하도 오랜만에 보는 진풍경(?)이라 너무 신기하고 놀라와서 성당에 들어가 봤더니 인권영화제 때문이었다. 나흘 동안 총 13편을 상영하는데 그날 예정된 <레드 헌트>(Red Hunt) 상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란다. 자유대한의 칠천지 웬수 '빨갱이 사냥'한 것을 왜 못보게 하냐고 물었더니 유감스럽게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어 압수수색영장이 떨어졌단다.

이 영화는 1948년 제주에서 발발한 4.3사태를 재조명하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 92년 북제주군에서 발견된 다량쉬굴과 주검 없는 가묘가 즐비한 공광리 일대, 생존자 증언, 미군정보고서 등 방증 자료를 통해 최소 3만명이 학살당한 이유를 집요하게 추적하였다. 그러나 공연윤리위원회의 일괄 심의도 받았고 지난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지만 아무런 문제삼지 않았던 작품이다.

그런데 뒤늦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학교에서 가르친대로 4.3 폭동이라 하지 않고 4.3 학살이나 4.3 항쟁으로 잘못 알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인가. 그리하여 국부이신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의심을 갖고 자유대한의 영원한 우방 미국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생겨날까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10살도 안된 어린이들과 60넘은 노인들까지 무참히 학살한 과거 정권의 치부가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더 좋은 수를 가

르켜주마. 부끄러운 과거를 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 아래 머리를 함께 둘 수 없는 부모죽인 원수요, 자식죽인 원수요, 남편죽인 원수지만 이미 뼈도 썩고 살도 썩어 한줌 흙이 되어 버렸는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러나 공권력의 탈을 쓴 반민족적 반역사적 무리들의 무고한 양민 학살에 대한 엄중한 처단, 진정한 참회와 용서의 경험이 없어서 결국 광주학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설령 사건의 해석에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내버려둬라. 겁에 물이 반쯤 들어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최소 3만명이 죽어간 엄청난 참사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다양한 시각이 아무 탈없이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화요 국제화요 세계화가 아닌가.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고와 판단을 대신해줄 필요도 없고 해줘서도 안된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영화 정도는 검열없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숲정이 산책



주님께서 부르실때면



싸늘하고 맑은 공기와 마른낙엽이 시간의 마감을 재촉하는 날씨에 20대 초반부터 애령봉사를 시작하여 40대 중반에 이른 안성기(가스팔 43세, 덕진성당) 형제를 만났다.

-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애령봉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 원래 저는 상관성당 출신입니다. 20년전쯤 덕진성당으로 옮긴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당시 사무장님께서 어느날 갑자기 어딜 함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방을 들고 따라간 곳이 상가였습니다. 연도를 끝내고 돌아오려고하니 염습하는걸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영접결에 잡혀서 그때부터 이 일(애령봉사)을 하게 되었습니다.

- 봉사시간을 내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 사실 처음 시작할때는 무섭기도 했구요. 제가 일을 하러 가야될 때 초상이 났다는 연락이 오면 갈등이 생기지요. 어느때는 밤중이나 새벽에도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오면 짜증이 날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용기를 내라고 깨우쳐 줍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싫증을 내지 않고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건 집사람의 격려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보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요?

- 10여년 전쯤 피부암으로 돌아가신분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평소 아프실때도 가끔 방문을 했었지만 임종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이미 피부가 부패해서 눈과 턱의 형체가 없어진 상태였어요. 생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결국엔 썩어 없어질 육신에 대해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하구요. 주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 죽음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일까요?

- 저로서는 계속 남들이 꺼려하는 애령봉사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구요.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남이 싫어하거나 숨은일을 찾아하고 이웃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랜 애령봉사 경험을 하시면서 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요?

- 제가 어렸을적엔 이웃에 초상이나면 연도소리가 끊이지않고 출상때까지 돌봐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애령회원이 아니라도 모든 신자분들이 초상집에 찾아가 염과 입관에 참석하여 기도해 주시고 장례미사나 장지까지 함께 가주시면 유족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고 전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특집

1997년 성서주간(11. 23~29)을 맞이하여

사람이 빵으로만 아니라 하느님의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인 하느님 말씀”(요한 4장)을 주제로 작년에 열린 가톨릭 성서연합 제5차 총회는, 오는 2002년 다음 총회까지 이 주제의 뜻을 더욱 깊이 새기며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신앙인인 우리마저 “말씀과 삶”을 과연 어떻게 하나로 이어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먹고 사느라 밥벌이를 합니다. 살자니 먹어야겠고, 먹자니 애써 일해 밥을 벌어들여야 합니다. 이는 인생살이의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며, 많은 경우 나 하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엄숙한 의무이자 깊은 보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다는 것은 분명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본디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 존재인 지라, 저절로 내 삶에만, 우리 식구에만, 내 지위와 위치, 내 재산과 사업에만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남들과는 진정 한술밥, 한 식구 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경제발전과 무한경쟁만을 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어려서부터 서로 돕고 더불어 살기보다는 남을 눌러 이기기만을 가르친다면, 결국 인생을 “먹느냐 먹히느냐”는 질박한 상황으로 여겨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남을 내 밥으로 삼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 같아 정말 두렵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느라고 정신없이 버둥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마태 4, 4)고 하시며,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아모 8, 11)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매달리는 무리에게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요한 6, 27)하고 일깨워 주십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 “선생님, 무엇을 좀 잠수십시오”(요한 4, 31)하고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에도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요한 4, 32, 34)하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그 “뜻”과 “일”이란 정작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1요한 3, 16)라고 한 성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요한 6, 51)이 되는 것이 곧 제자들이 모르던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과연 평범한 인간인 우리가 것처럼 숭고한 “뜻”과 “일”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살기를 참으로 갈망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리어 자기를 양식으로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뜻”과 “일”을 사는 것이며, 주님께서 품소 보여주신 대로 모두가 살게 되는 참되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L G 에 어 콘

프라즈마 공기정화 에어컨
10개월 무이자+D/C

백제로 빙상경기장 앞

(주) 삼 화 공 조

☎ (0652) 241-2000

경일 조립식 건축

주택 · 교회 · 공장
실내 인테리어
일반 건축 토목

김 해 선(레이미지오)

☎ (0652) 245-1611~2
FAX 245-1610

전 통 폐 백

폐백전문

서 영 복(아네스)

중앙상가내

상가 (0652) 252-9221
자택 (0652) 84-4785

치질 전문 치료

서 울 의 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 14-17). 우리는 지금 북녘 동포들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거레일 뻔더러 같은 하느님 아버지의 한 식구입니다. 동포는 물론, 고통받는 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느님의 귀한 자녀이며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여기 있는……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35, 40)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1요한 4, 20) 하는 질문에 내포된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저 하나의 추상적인 이상이나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몸으로 드러내는, 더없이 구체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온 인류는 마더 테레사에게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어려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 희망의 등불이며, 사람다운 삶으로 부르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1고린 10, 16-17).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들을 귀로는 익히 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은 그 말씀을 날마다 실제로 사는 일뿐입니다. “말로나 혀 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1요한 3, 18) 일입니다. 그러려면 성서를 늘 가까이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곧이든도록 정말 힘써야 하겠습니다.

구세주 강생 2000년 구원의 대희년을 앞두고, 모든 이에게 당신 한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다 내어주신 주님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진 것을 나눈’(사도 4, 32) 초대 교회 신자들처럼, 오늘의 우리 또한 저마다 새롭게 태어나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는 참 신자가 되도록 하느님께 기원하십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장 익 요한 주교

요십이 (1267) 김병오



원 아 모 집

대상 : 92년 3월 1일~
98년 2월 28일 출생자녀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종일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혜택 ④ 차량운행
접수 : 팔복 성모어린이집
전화 : 212-1618

숲속의 바람이 푸른 들녘을 스쳐오고 공해없는 해맑은 식수가 가득한 곳

사회복지법인 **구이어린이집**

오 문 기(갈리카노)

원아 0세부터 7세까지 수시모집

☎ (0652) 221-3484~5

서 림 모 피

'98 모피 신상품 전시판매 개시
혼수, 호도 상품 “초특가 판매”
모피의류 수선·개조 및 세탁 상담
익산시 어양동/익산 수출자유지역내
전시장 연락처 (0653) 833-2111~4

청 솔떡백화점

전통 떡의 모든 것. 주문배달

이 종 탁(요 한)
이 승 철(모이세)

남부시장 매곡교 ↔ 전주교 중간

☎ 83-0275, 84-0275

이지문구 유통상사

에버그린 전복대리점
모 나 미
팬시, 문구, 수입필기구 전문 도매유통
단체 납품 및 문구점 개업상담 환영
대표 : 정 상 남(요한)
이사 : 전 현 배(다두)
군산시 월명동 18-23(명산동 사거리)
☎ (0654) 468-8894, 63-5048

씨에 프랑스(주)

유럽 및 세계 전문 여행사
유럽 배낭여행

<여행 상담을 환영합니다>

조 중 자(베로니카)

덕진광장 앞 서울의원 2층

☎ 72-3335 FAX 72-3065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희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1997년 예수 그리스도의 해

2000년 대희년 표장의 의미

등근 바탕은 우주를 나타내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다섯 마리의 비둘기는 다섯 대륙에 함께 모인 인류를 나타내는데 십자가가 이 인류를 지탱하여 받들고 있다. 십자가는 비둘기들의 색깔과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조건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심”을 표시한다. 표장의 가운데에서 비취나오는 빛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야말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 이시다. 비둘기들이 만드는 등근 모양은 2000년 대희년에 생명을 불어넣는 유대의 정신을 명시한다. 색깔의 생생함과 조화는 대희년 축제에 없어서는 안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2000년까지 2년 2개월 7일 남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생태계의 오염

20세기 후반의 산업 사회에서 그 시대적 특징으로서 대변될 수 있는 것은 3P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3P란 인구폭발(population explosion), 기아 및 빈곤(poverty), 공해(pollution)의 첫문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존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간의 수적 성장 즉 인구 증가는 복리적이며 기하 급수적으로 진행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하여 지구의 일정한 이용 면적에서 생산되는 생산성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 증가와 영양의 질적 개선 등에 의해 필연적으로 식량 결핍과 기아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산업화와 대량 생산 체계에 따라 농축된 노폐물의 대량 발생 및 생활 배출물 등의 축적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고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하여 생태계의 자정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환경 파괴가 초래될 것이다.

전주문구센터 NEODADA

1층 악세사리 팬시
2층 학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 수 관(야고버)
심 경 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주) 청풍 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대회 환경부분
8회 연속 금상 수상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월터, 음
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흥기(아블리나리스)
이현자(세 시 리 아)
☎ (0652) 251-0222

원구 종합 전문 매장 전주완구도매센터

리틀타익스, 레고, 영실업, 미미,
전동차, 발육기구
각종 고급 완구 도 · 소매
다가동 ↔ 도청(삼성생명 옆)
이 근 초
정 명 희(아 네 스)
☎ 84-2795, 84-8561

고려주단 확장이전

한 북 · 이 불
김 삼 레(소 피 아)
기린오피스텔 옆
☎ (0652) 88-1902

교구소식

❖레지오 단원교육

- 때 : 11월 24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 신동성당

❖수녀연합회 피정

- 때 : 11월 24일(월)~25일(화)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공소회장단 연수

- 때 : 11월 27일(목)~28일(금)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11월 28일(금) 오후 11시
- 장소 : 전동성당

❖레지오 마리아 2천년 대회를 위한 지역 복음화운동 평가회

- 때 : 11월 29일(토)~30일(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고교 3학년 피정

- 때 : 11월 29일(토)~30일(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혼인강좌

- 때 : 11월 30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 센터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때 : 12월 4일(목)
- 주제 :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 지도 : 김동준 신부

❖용머리 새성전 축성 및 봉헌 미사

- 때 : 12월 6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용머리 성당

❖김치삼 신부 주소 변경

평화동 일성APT 103동 1207호
☎ (0652) 227-1003

❖제2차 성체현양대회 개최

- 전야제 : 12월 7일(일) 오후 9시
전동성당, 철야 성체조배
- 당일 : 12월 8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치명자산 주차장
- 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
- 주최 : 지속적인 성체조배시

❖김영수 신부 주소변경

Fr. Henry Kim
73 Trinity House
Norfolk Road Cliftonville
Kent CT9 2HX
ENGLAND
TEL : 0044-1843-293542
FAX : 0044-1843-226629

성 소 모 임

❖동정 성모회

- 때 :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소 : 금암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53-0325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 때 :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 장소 : 호성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44-0094

❖인보성체 수도회

- 때 :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 장소 : 중노송동 본원
- 문의 : (0652) 84-3231

❖바오로딸 수도회

- 때 :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 장소 : 바오로딸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샬레시오 여자 수도회

- 때 : 매월 셋째주 오후 2시~5시
- 장소 : 정읍 연지동 성당
- 문의 : (0681) 33-2578

권해 드립니다

복된 슬픔

조안 군첼먼/5,000원/바오로 딸
우리 주변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고통과 상실에서 오는 아픔도 많다. 사람들이 겪는 상처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고 기도로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그리스도의 생애

크레모나/6,800원/바오로 딸
크레모나 신부가 네 복음서를 자신의 생활로 재해석하여 쓴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불분명함으로 신앙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는 책

관리장·사무원 모집

금암동 성당

채용시기 : 98년 1월
관리장 : 60세미만, 교구내신자, 건강한자
사무원 : 30세미만, 교구내신자, 건강한자
제출서류 :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학력증명서(사무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관리장)
신청마감 : 97년 12월 15일(본당사무실)
☎ (0652) 251-1911

디자이너가 만든 패션 학생복

에리트학생복

학생복 코트 판매

본 점 : 74-0591~2
송천점 : 75-1317~2
효자점 : 226-5497~8

임 성 군(세실리아)

연지곤지 웨딩이벤트

드레스 40만원
(턱시도·신부화장 부케, 페백웃 무료)
웨딩포토·비디오 촬영 원판
유 순 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 82-2347 (야) 225-5755

쥬정이 익스프레스 이시집

사다리차·인부대기·포장이사
251-2024
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총각김치, 동치미, 백김치,
돌산갓김치, 깍두기, 고들빼기
재래식품-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김치-주문 받습니다.
(0652) 212-7442
☎ (0654) 452-4939
(0653) 52-5300

민 속 떡 집

맞춤떡·페백전문

이 종 술(미카엘)
박 양 레(미카엘라)
☎ 84-4427
전주교묘 남부시장 입구

